

경제포커스

■ 문화예술과 서울시의 문화경제 지표

장광렬(국제공연예술프로젝트 대표)

■ 뮤지컬, 그 판타지가 세계를 물들인다

박용재(스포츠조선 편집국 부국장)

문화예술과 서울시의 문화경제 지표

장광렬*

국제공연예술프로젝트 대표

ipap@paran.com

I. 문화예술과 커뮤니티의 접합

문화예술을 통한 이미지 고양 정책은 이제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아니다.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은 물론, 가까운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도 문화예술을 통해 국가나 지역의 이미지를 높이려는 정책들이 전략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새로운 컨셉트의 공연장이나 미술관, 도서관 등을 건축해 도시의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것이나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이벤트나 축제를 만드는 신규 프로젝트의 시행 등은 모두가 같은 사례들이다.

뉴욕의 링컨센터와 워싱턴의 케네디센터, 파리의 퐁피두센터와 런던의 바비칸센터 등은

* 저자 학력, 경력 및 최근 연구:

- 공연예술전문지 <객석> 편집부장 역임
- 현재, 외교통상부 공연예술자문위원
- 문화관광부 정책평가위원
- 한국춤정책연구소장
- 저서 : <당신의 발에 입 맞추고 싶습니다><하늘높이 춤추며>

모두 해당 도시를 상징하는 건물들로 복합 문화공간이란 공통점을 갖고 있다. 문화예술의 가치가 새롭게 인식되면서 그 나라의 문화예술을 대변하는 이들 시설들의 경제적인 효용성 역시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

축제의 경우도 지역이나 국가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기여하는 중요한 소스가 될 수 있다. 7,8월에 걸쳐 16개의 국제적인 축제가 열리는 핀란드의 경우 실내악에서부터 오페라, 무용에 이르기까지 각 지역마다 바캉스 족들을 대상으로 한 질 높은 축제, 차별화된 축제를 개최, 이를 관광 상품화 하고 있다.

영국의 에든버러 페스티벌과 프랑스의 아비뇽 축제는 대규모 공연예술 축제로서 그것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문화상품이 되었고, 바티칸에 이어 가장 작은 국가인 모나코도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2년에 한 번씩 “모나코 댄스포럼”이란 새로운 개념의 축제를 시작했다. 프랑스의 몽펠리에 댄스 페스티벌은 지역의 이미지 고양 외에도 무용예술에 대한 주민들의 안목을 상승시키고 나아가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면모를 보여 준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어서 각 도시마다 지역 축제를 신설하고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국제적인 축제들을 새롭게 유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역축제로서 해당 지역의 문화적인 이미지를 높여주는 모범적인 사례도 있지만, 홍보성만을 의식하거나 단기 간에 상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것들을 택하는 과정에서 축제의 성격이 중복되거나 타 지역과 유사한 축제가 되어버리고 마는 우를 범하는 곳도 생겨나고 있다.

문화예술은 공연장이나 축제 등 인프라의 구축 뿐 아니라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직접 그것을 체험하는 것을 통해 더욱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 곧 문화예술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을 때 그 도시는 문화도시로서 지역의 이미지 고양에 확실하게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새롭게 ‘문화도시’를 표방한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새로운 랜드마크의 구축 못지않게 바로 이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서울특별시는 최근 들어 문화예술과 지역문화를 논할 때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는 커뮤니티와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문제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 국민들의 창의력을 함양하고 국가 이미지를 높이려는 선진 여러 나라의 새로운 문화정책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새 예술정책을 발표했고 그 정책 중에는 ‘문화예술교육’이란 용어를 새롭게 사용했다.¹⁾

미국과 독일, 프랑스 등 문화 강대국에서는 이미 교육적인 차원에서 ‘예술’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프로그램들이 구체화되고 있고 학교와 공공 기관 등에서 실행되고 있는 새로운 프로젝트들도 많다.

미국 뉴욕에 있는 ‘The Lesbian, Gay, Bisexual & Transgender’ 커뮤니티 센터는 예술 장르를 포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의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미셸 노만이 주도하는 <Men of All Colors Together at Dance>란 프로그램은 “파트너를 동반할 수 있고 마음껏 춤 출수 있다”라고 소개되어 있으며, <Special Lesbian and Gay New England-Style Contra Dance Workshop and Dance Party>란 긴 제목의 프로그램은 “춤추어 본 경험이 없어도 괜찮고 파트너가 없어도 괜찮다. 라이브로 연주되는 아팔레치안 음악과 함께 춤을 배운다”라고 소개되어 있다.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기도 한다. 문화예술을 통한 소외 계층에 대한 배려는 이처럼 선진 여러 나라에서는 문화 복지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제 예술은 일부 전문가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예술 작품이나 행위를 저만치 떨어져 보고 즐기던 시대 역시 지났다. 사람들이 스스로 직접 예술행위를 체험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춤을 추고 악기 연주 등을 통해 신체적, 정서적으로 불안한 사람들은 미적 체험을 할 수 있고 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됨으로써 그 만큼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지역사회에서 문화예술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예술을 만나는 교육의 단계를 뛰어넘어 예술행위를 직접 체험하는, “스스로가 예술가인 시대”로 접어들어야 한다. 그 같은 목표를 위한 프로그램 시행의 예를 나는 라트비아에서 목격할 수 있었다.

발틱 3국에 속한 라트비아의 수도 리가의 Cultural Palace는 800여 석을 갖춘 공연장 외에 연습실과 전시 공간 등을 활용해 지역사회의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장년층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학교나 유관 사회기관이 아닌 극장에

1)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롭게 발표된 문화정책 중 그 동안 ‘예술교육’이란 단어를 사용한 예는 없었다. 문화관광부 안에 문화예술교육과와 문화예술교육진흥원 출범 이후 예술교육 프로그램은 훨씬 다양하고 전문화되면서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기초예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최근 예술계의 흐름과 맞물려 향후 예술교육은 더욱 다양한 형태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서 직접 지역사회와 연계시킨 예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역 주민들을 위해 주로 밤 시간을 이용, 공연을 보여주는 기능에만 머물렀던 공연장의 새로운 변신은 하루 중 편안한 시간에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문화예술을 직접 향유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생활 패턴을 변화시켰다.

무용의 경우 안무가와 무용 지도교사를 통해 어린이 청소년과 성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편성되어 있고, 이들 프로그램 수강자들 중에서 선별, 무용단을 만들어 그들 스스로가 새로운 작품을 창작, 극장 무대에 올렸다.

지역 주민들은 무용을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연습 과정을 거치고 분장을 하고 무대 의상을 입고 무대에서 직접 공연하는 경험을 생활 속에서 스스로 예술가가 되어 예술행위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II. 세계 공연예술계의 최신 경향 및 미래의 공연예술

문화예술이란 광의의 개념은 그것이 정책과 연계될 때는 보다 세분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문화도시를 표방한 서울특별시는 미래에 문화산업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은 공연예술 부문에 대해 특화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예로부터 가무를 즐겼던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민족적인 기질 외에도 공연예술은 21세기 들어 디지털과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인해 소통 면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예술장르로 부각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가능성은 이미 지구촌 곳곳에서 가시화 되고 있다.

세계 공연예술계의 새로운 변화 중 하나는 창작에서의 탈 장르 경향 및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인한 타 장르와의 크로스오버 작업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작품 속에 문화 다양성을 담아내려는 시도가 성행하고 있으며, 순수예술과 대중예술이 서로 융합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공연예술의 여러 장르 중에서도 특히 무용은 다른 어떤 예술 장르보다도 공간성을 중시한다. 또 무용예술이 매개로 하는 인체는 시각예술에서의 눈, 음악에서의 귀, 문학에서의 상상력보다 더 광범위하다. 사실상 무용은 예술을 연결시켜 주는 예술일 수 있

고, 또 그 자체로서 훌륭한 시각예술이다.

세련된 비주얼과 사이버 미디어는 인간의 인식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이버 스페이스는 확실히 사람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했다. 이와 함께 사이버 스페이스에서의 몸에 대한 관심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사이버 스페이스에서의 몸은 통신, 사이버 섹스, 시뮬레이션 게임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 같은 경향은 미래사회에서 더욱 가시화 될 것이다. 그리고 인간의 몸을 매개로 하는 예술 장르란 이유 하나만으로도 무용은 상호 소통의 가능성이 가장 농후한 장르가 될 것이다

또한 새로운 세기의 공연예술은 지금보다 더 최첨단 테크놀로지와의 결합 가능성이 농후하다. 비디오는 물론, 레이저, 컴퓨터, 로버트 등을 이용한 새로운 양식의 창작 작업이 맹위를 떨칠 것이다. 무용예술의 경우, 컴퓨터를 이용한 안무는 이미 실용 단계에 있으며, 무대 위에 춤추는 로버트가 등장하기도 한다.

또한 미래의 공연예술은 건축물이나 자연환경 등과의 조우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과학기술로 인한 네트워크의 발달을 통해 예술 행위자와 감상자는 다양한 소통 공간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 공연예술 발표무대가 확장될 수 있고 결국 이 같은 변화는 새로운 공연양식의 창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미래의 예술은 또한 관객들이 직접 참여하는, 아마추어리즘의 확산을 통한 문화예술의 생활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새로운 예술에 대한 또 다른 개념, 공연예술에 대한 일반 대중들의 인식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시간성에서나 공간성에서 예술가들과 관객들은 더 많은 채널을 통해 조우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공연예술 역시 현장예술로서의 생생함이 확연히 부각될 것이다. 시간성과 공간성에서의 변화는 또 예술이 우리 생활현장에서 더욱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형태가 될 것이다.

미래의 예술은 또 궁극적으로 인간성 회복이란 화두로 모아질 가능성도 높다. 문명화된 기기, 첨단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예술 행위는 인간적인 면의 결여로 이어질 수 있고, 이에 염증을 느낀 예술가들은 인간의 몸 자체를 통해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강조하고, 인간 본연의 문제를 탐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III. ‘문화도시’ 로서의 ‘서울’ 의 이미지

우리는 글로벌 시대,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다. 인터넷의 확산은 지구촌 곳곳을 하나의 통합된 생활권으로 묶어 가고 있으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부문에서의 급박한 변화는 한 나라의 정책 기조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21세기에서 ‘예술’이란 예술의 생활화를 통해 국민들의 창의력 개발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의 힘을 길러야 한다는 보다 큰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예술교육’, ‘커뮤니티 예술’ 등 “예술”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²⁾

지금이야말로 문화정책 입안자들은 예술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란 새로운 코드에 눈을 떠야 한다.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특별시 역시 예외가 아니다. 새로운 세기에는 앞서 언급했듯 예술을 저만치 떨어져서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예술행위의 주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에서 새로운 세기의 예술은 궁극적으로 ‘살아있는 예술’(Live Art) 혹은 ‘삶의 예술’(Art of Living)이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21세기는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는 시기이다. 또한 21세기는 문화예술을 통한 문화 경제의 시대, 문화다원주의가 힘을 갖는 시대가 될 것이다. 그러나 선진사회에서의 문화예술 생활화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주변 환경이 문화적으로 변할 때 그것은 가능해진다.

그런 의미에서 문화 정책 입안자들, 그리고 예술가들은 감상자들이 보고 즐기는 예술에서 직접 체험하는 예술로 인식을 바꾸고 정책의 기조를 바꾸어야 한다. 문화도시를 표방하는 서울특별시 역시 지구촌의 이 같은 새로운 변화의 흐름에 눈을 돌려야 한다.

서울특별시가 표방한 “문화도시”는 새로운 예술 관련 시설을 건립하는 것을 뛰어넘어

2) 1950년대 초반부터 미국 내에서 예술을 지원하는 일반 후원자들과 사회 지도자들은 미국사회에서의 예술의 가치에 관해 많은 주장들을 하였다. 그들이 주장하기를 예술은,

- (1) 해외에서 미국사회의 이미지에 중요하며,
- (2) 의사소통의 수단이며 따라서 미국과 다른 나라들간의 이해를 촉진하는 수단이고,
- (3) 국가적 목적의 표현이며,
- (4) 개인의 교양교육에 중요한 작용을 하며,
- (5) 미국인들이 자신과 자신의 시대와 운명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이고,
- (6) 젊은이들에게 의미깊은 과업이고,
- (7) 미국 공동체들의 사회적, 도덕적, 교육적 자원들을 동원하는 기관들에 극히 중대하며,
- (8) 사업에 유익하고 - 특히 새로운 인구 중심지 내에서 -,
- (9) 민족적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어떤 민족에게 도덕적, 정신적인 면을 강화시켜 주는 요소
- (10) 대개 부유한 사회의 물질주의를 상쇄하는 작용을 한다고 주장했다

예견되는 미래의 예술과 예술의 산업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해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로 이어져야 하는 그 무엇이어야 의미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외 예술계의 새로운 흐름을 간파하고 향후 다가올 미래의 변화를 예측, 적절히 대응하는 노력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 예술성 높은 작품을 통한 서울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 서울 시민들의 생활 속에서 살아 숨 쉬며 창의성 신장의 원동력이 되는 문화예술
- 문화예술을 통한 서울특별시의 이미지 고양과 이를 경쟁력의 중심으로 삼는 정책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문화예술이 인간과 사회를 위해 함께 하는 세상”을 지향할 때 서울특별시는 문화경제 지표의 상승은 물론, 진정한 문화도시로서 세계인들과 소통할 수 있을 것이다.